

2023 새해 이렇게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남해안 벨트 허브도시 도약”



오천그린광장·가든 스테이...도시 재설계 웰니스·메타버스 선도 경전철 폐선 부지 활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조속 마무리

“우리 순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개최 할 것입니다. 이를 동력 삼아 웰니스,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3일 새해 인터뷰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이에 따른 시의 위상 상승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노 시장은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잘 준비되고는 있지만, 걱정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전 도시의 정원을 목표로 도시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의미를 지니며 아스팔트가 잔디가 되고, 차를 위한 공간이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사람 위주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이 지향해야 할 미래 도시에 대한 경험을 순천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

일부터 국가정원의 문을 잠시 닫고 획기적인 콘텐츠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순천의 미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정원 속에서 힐링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가든 스테이, 화려한 경관과 동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정원드림호 도입, 맨발로 건강을 쟁길 수 있는 어싱길 조성 등 더욱 다양해진 콘텐츠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해안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순천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지난해 TF를 구성해 수립한 ‘일류 순천 2050 미래 비전’을 실행해 정주, 복지, 경제, 문화 등 도시 모든 분야를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도보) 도시로의 전환과 경전선 도심 통과 노선변경, 쓰레기 처리 문제

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순천 도심 한가운데 빼낼 수 없는 대못을 박는 일이었으나 행정과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시는 선제적으로 경전철 도심 통과 노선 변경에 대비해 폐선 부지 활용 방안 역시 도시계획과 연계해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혈을 기울여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직매입이 금지되는 2030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웰니스 시대를 선도하는 순천다운 글로벌 일류문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병행한다.
순천시가 지난 30년 동안 생태를 보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웰니스 시대를 선도하고 문화, 스포츠 등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다양한 분야에도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순천만과 여차만 일대에 국가 해양 정원을 조성해 내륙정원과 해양 정원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아무진 목표를 세웠다. 이는 습지 복원 및 보존에 대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노 시장은 내다봤다. 여기에 순천만습지를 국가 정원까지 연결하는 마스터플랜도 더하고 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순천 예술의 전당, 순천 종합 스포츠 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선진국형 예술·스포츠 클럽 문화를 창조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에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해 웹툰·애니메이션·게임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 강화로 디지털 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끝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8기 시정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삼합’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아무리 실력 있고 공무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시민이 함께하지 않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며 “품격 있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일류 순천으로 가는 문을 함께 열어나가자”라고 지지와 지원을 부탁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구례군, 올 131억원 투입 맞춤형 평생 행복도시 조성

농촌유학타운 농촌유학생 유치 행복가족 복합센터 가족 서비스

구례군이 올해 131억원을 투입해 ‘누구나 누리는 평생 행복도시’로 도약한다고 4일 밝혔다.
구례군은 우선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군민 리스타트 평생직업교육 확대와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옛 매천도서관 리모델링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 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유학생을 유치했으며 군에서는 그동안 71가구 105명이 농촌유학에 참여, 2023년에는 80가구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매입한 구 계산분교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 농촌유학타운을 조성하여 농촌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배움의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 구례의 학생들이 도시권 학생들과 학력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서울 강남구청과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고등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고 1학년 입학생 500명에게는 입학 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에듀버스와 에듀택시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중심의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해 행복가족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가족 돌봄 등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고 만남과 소통의 복합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하여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

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및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한부모 가족은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결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는 급식 지원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구례군 드림스타트에서는 만 0세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135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가정방문 학습지사업, 심리상담, 예방접종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 합기도 수련생들의 온정 광양시 광양읍 도술합기도는 최근 광양읍사무소를 찾아 후원금 50만원, 라면 1000개를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중호, 민간위원장 허형채)에 전달했다. 도술합기도 수련생들은 순수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자 후원금을 마련했으며, 물품과 현금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2023년 공공심야약국 ‘공약국’ 지정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공약국’ (사진)이 올해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밤 12시까지 365일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중마동 공약국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절차는 보건소나 약사회에서 지역 내 참여 희망약국 조사 후 최종 추천되면 전라남도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며, 지정기간은 1년으로 전라남도도 광양시의 지원을 받는다.
공약국으로 지난 한 해 심야시간대 이용실적은

총 2466건으로 월평균 의약품 판매·상담 실적은 206건이며 20~40대 연령층 이용자가 많았으며, 주로 호흡기와 해열 소염진통제 관련 의약품 구입이 많았다.
정흥기 광양시보건소장은 “소아·임산부 등의 의료 취약층을 비롯해 광양시민 누구나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여성 농·어업인 年 20만원 행복바우처

2월 28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

여수시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4670여 명의 여성 농·어업인에게 연 20만 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내 1년 이상(올 1월 1일 기

준)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 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업)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디오션리조트,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 우수

여수 디오션리조트가 근로자의 처우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4일 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2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 컨설팅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 컨설팅사업’은 2020년에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 제도가 실제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오션리조트는 호텔, 콘도미니엄, 컨트리클럽, 워터파크,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해양복합리조트로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해 리조트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처우개선에 힘썼다.
지난해 자유로운 소통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기존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조직 구조로 개편했다.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 외에도 직원들의 시설물 이용 혜택 확대, 해외 벤치마킹 지원 등 여러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해 종사자의 높은 근무 만족도를 유지하며 노사가 함께 상생·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2022년 한 해 동안 27차례 수시 채용을 진행해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도 기여했다.
유광현 디오션리조트 유광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한 리조트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리조트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

50%서 전액 지원으로 상향

고흥군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그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건강보험료 미적용과 20만원 상당의 높은 비용으로 노령층 및 저소득층 군민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고흥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기존 예방접종비 50% 지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개정 등 사전 준비를 거쳤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하게 됐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의 신경절

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수포성 발진과 심각한 통증,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며, 젊은층 보다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8~10배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박준희 고흥보건소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발병 및 합병증도 예방되어 노년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미세먼지 감시원 모집 18세 이상 5명...9~13일 접수

광양시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모집한다.
시는 2022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약 1450개소를 점검 지도하고 기준을 위반한 20개 사업장을 적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올해 감시원 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며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봉사활동 실적, 취업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은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9~13일이며,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시청 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